

행정학의 주류 연구방법인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신희영**

이 논문은 행정학의 주류 방법론인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을 밝혀내고 행정학 연구방법의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 비판적 실재론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적 기초는 인식주관으로 부터의 실재의 독립성(존재론적 가정), 진리상응설과 연역법칙적인 인과적 설명원리(인식론적 가정), 사회와 개인의 개념작용(사회적 존재론과 이론) 등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재적 비판 접근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과 모순을 논증하였고,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 비판적 실재론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사회이론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은 행정학 연구방법의 다원주의와 다중방법론을 가능하게 하며, 실천적 적합성을 갖는 행정이론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내재적 비판, 비판적 실재론, 존재론적 총화, 창발성 존재론

1. 서론

행정학의 연구방법은 신행정학 이후 후기 실증주의가 연구방법을 안내하는 메타이론으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실증주의에 기초를 둔 ‘과학적’ 연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행정학회 30주년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행정학에 있어서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쟁점에 대한 고찰”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임의영교수와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세심하게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정부학, 복지행정 등이다(shinhy@gu.ac.kr).

구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종민, 2016; 김호정, 2017). 이러한 경향의 배후에는 실질적 연구를 안내하는 연구방법론의 메타 이론적 기초(과학적 연구방법의 기본가정들과 전제조건들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성찰적 논의 없이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가 있다. 실증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사회구성주의 등에 기초한 질적 연구가 행정학의 지식 성장에 온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주창하는 입장에서의 비판의 강도가 누그러지지 않는 것(White, 1986; Lowery and Evans, 2004)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행정학계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편향을 구부리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윤건수, 2005, 2008; 심준섭, 2006; 신충식, 2009; 임의영, 2008; 이영철, 2006). 그러나 질적 방법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범하는 오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진정한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Bhaskar, 1998: 2). 즉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경험주의적인 인과성과 존재론을 전제하는 실증주의의 과학관을 인정하고 개념의존적인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실증주의의 과학관을 부정하는 방식(경험 가능한 사건들 간의 일정한 결합은 사회과학의 설명에 있어서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도 아니다)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가능성의 기준과 달리 인과적 기준에 의해 실재성(reality)를 부여하면, 이러한 논증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질적 방법론을 주창하는 입장이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 이론적 기초를 성찰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경험적 연구 방법과 전략의 선택이 존재론과 인식론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Scott, 2013; Archer, 1995: 16-30), 행정학의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 철학적 논의는 경험적인 실질적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행정학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메타이론 영역에서 당연시 하고 있는 주요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인 항목들에 대해 내재적인 비판을 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대안적인 메타이론인 비판적 실재론에 기초하여 행정학 연구방법론의 다원주의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재적 비판(immanent critique)은 주창하는 이론과 이론이 함의하고 있는 실천 간의 비일관성을 논증하는 것(Bhaskar, 1994: 65-66; Lawson, 1997: 64-65)이며, 기존 증거 틀 내에서 세계를 서술하는 현재 및 과거의 방식이 결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안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Cruickshank, 2002)이다.

II.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 이론적 기초들에 대한 내재적 비판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은 계량적 모델을 활용한 실증적인 경험적 연구를 말한다(Hesketh and Fleewood, 2006). 달리 말하면 사건들의 일정한 결합으로부터 구성된 보편법칙 및 일반화의 형태로 사회현상에 대한 통계적 설명의 발전을 유도하는 통계적 실증주의를 말한다(Scott, 2007). '과학적' 연구방법을 개략적으로 언급하면 가설 연역적으로 설명대상인 사건을 예측하고 이론적 개념들은 관찰 가능한 변수로 조작화한 다음에, 점 같은 관찰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규칙성을 찾고 예측적 타당성의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지탱하게 해주는 메타이론적 기초는 과학적 지식의 성격과 한계를 논증하는 논리실증주의 인식론에 의해 제공된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 인식론의 주요 이론적 가정인 실재의 인식주관으로부터의 독립성(존재론적 전제), 진리상응설과 연역법칙적인 인과적 설명의 원리(인식론적 전제), 사회와 개인에 대한 환원주의 가정(사회적 존재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철학적 논증은 Bhaskar의 철학적 논증방법에 빛을 지고 있다.

1. 인식주관으로부터 실재(reality)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회과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인 그 무엇이 존재해야한다. 사회가 실재해야만 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적 활동이 가능하다. '과학적' 연구방법이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적 기초는 경험적 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는 경험 가능한 원자적인 사건 및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실재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객체의 관찰가능성이다. 즉 경험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는 객체 및 사건들만이 실재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지식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건들 간의 규칙성을 인과법칙적으로 개념화하는 실증주의 과학관에 의거

1) 이러한 경험적 실재론이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Bhaskar, 1997: 63-69). 첫째, 우리는 현상이외의 어떤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둘째, 우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과 생산의 실재적 양식은 모르고 서로 다른 사건들이 연쇄적인 방식으로 관련된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들 간의 연쇄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불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만 알뿐이다. 셋째 사건들 간의 불변의 연쇄는 법칙이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전부이다. 넷째, 현상의 본질이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으며 불가해한 것이다.

하면, 과학적 활동에 있어서 감각지각(perception)은 인과법칙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사태에 대한 인식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감각지각이 갖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감각지각과 감각지각의 대상이 구분되고, 감각지각의 대상(사건과 사건들 간의 규칙성)이 감각지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고 전제할 때 지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지침인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실천(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 이론을 수정, 보완, 대체를 하는 과학적 변동과 과학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정한 과학적인 연구능력을 가져야만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즉 사건과 사태가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존재론적 전제가 성립되어야 ‘과학적’ 연구방법의 실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인 실증주의는 이러한 존재론적 전제를 유지할 수 없는 이론과 실천 간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경험적인 인식가능성의 입장(감각 지각적 기준)에서 연구대상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것은 연구의 주체와 객체를 융합하는 인식론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즉 인식론적 범주인 경험에 의해 존재자(ontic)의 실재를 규정함으로써 인식주관으로부터의 실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서 이러한 경험적 존재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의 이론으로서 실증주의는 사건들 간의 규칙적 연쇄인 인과법칙을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현실성(actuality)을 교의로 삼고 있다. 여기서 인과법칙이란 분리되고 독립된 원자적 사건들 간의 불변의 결합 즉 경험적 규칙성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며, ‘사건들의 불변의 결합’은 인과법칙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은 규칙성 결정론을 뒷받침하는 자연의 균일성(uniformity of the nature)과 원자적인 존재론을 요한다(Bhaskar, 1997: 69-90).

자연의 균일성을 보증하는 것은 폐쇄체계의 보편성이다. 항상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원인을 갖는 것은 원인사건을 구성하는 개체가 질적 변동을 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며(폐쇄의 내적 조건), 사건들 간의 규칙성을 발생시키는 체계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외부의 실체가 원인사건과 결과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폐쇄의 외적 조건)이다. 이러한 폐쇄체계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면 과학적 인식활동에서 중요한 실험활동 즉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정교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과학적 활동과 이러한 규칙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경험이 갖고 있는 과학적 중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세계와 사회세계는 특정한 서술 하에서 사건들 간의 경험적 관계가 불안정한 개방체계(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이 희귀하게 발생하는 체계)라는 것을 전제해야 실험활동을 남

득할 수 있다. 개방체계에서는 원인사건의 다중적 인과작용과 결과사건의 다중성으로 인해 원인사건과 결과사건 들이 일정하게 결합하는 것은 드문 현상이다. 따라서 인과 법칙을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현실성(actuality)을 교의로 삼고 있는 실증주의는 인과법칙의 보편성과 경험성을 동시에 보증할 수 없다. Heskth와 Fleetwood(2006)은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사건인 인간자원관리와 결과사건인 조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가 우연한 관계임을 입증한 바 있다.

원자론은 고립되고 분리된 원자적인 사건들과 이들 간의 외적 관계들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원자적인 개체는 내적인 구조를 결여하고 있어 사물(things)²⁾의 변동 즉 원자의 행위는 근접적인 원자들의 접촉행위이고 따라서 원인은 외적인 것이다. 원자적 개체의 유일한 속성은 특정 시공간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론을 실증주의 인식론의 입장에서 보면(Bhaskar, 1997: 80) 사물은 감각경험으로 파악될 수 있는 단순한 속성(qualities)으로 분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세계는 점 같은 감각경험으로 파악될 수 있는 원자적 사건과 사태로 구성된다(인식론적 환원주의를 동반함). 인과성은 고립되고 독립적인 사건들의 규칙적인 연쇄로 개념화된다. 사건들 간의 인과적 연관은 통제된 관찰과 같은 실험적 활동의 산물이기 에 자연적 필연성(자연적 가능성)의 개념이 유지 될 수 없다. 이는 실증주의 딜레마인 귀납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원자적 사건의 존재론은 '사건들 간의 불변의 결합'을 보증하는 폐쇄의 내적 조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원자는 내부구조(입자이기 때문)가 없기 때문에 원자들의 모든 행위는 기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 독립적인 원자적 사건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질적 변화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론은 인간 행위자나 조직구조와 같은 사물(복잡하고 미리 결정된 내적 구조를 가진 실체)의 내적인 변동을 통해 물질적으로 존속한다는 물질 연속성의 관념을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관료제의 계층제 구조는 자신의 복잡하고 미리 결정된(pre-formed) 내부 구조에 힘입어 위임, 노동 분업, 감독과 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같은 인과적 힘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구조를 변동시키면서도 물질 구조의 연속성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재의 그 궁

2) Bhaskar(1997: 226)에 의하면 사건, 경험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에 사물(things)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형이상학적 특성은 사물의 지속성과 초사실적 활동성에 있고, 사물은 물질적 객체와 힘, 물리적 힘, 장(field) 혹은 복잡한 구조 혹은 일련의 관계일 수 있다

극적 근거를 감각지각 가능성에 두고 있는 경험적 실재론은 지식주장에 대한 회의주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감각자료와 경험을 정정 불가능하고 확실한 인식론적 기초로 자리매김하는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Bhaskar, 2011: 43). 이와 같은 기초주의 존재론은 지식의 구성을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하고 경험을 세계와 동일시하면서 마치 '지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한' 지식의 존재론 화를 추동하며,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존재자를 인간중심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융합한다(Bhaskar, 1997: 163; 2011: 123). 즉 사유속의 객체와 실재적 객체를 동일시하는 사고로 인해 지식의 정정불가능성을 부여하는 인식적 절대주의(기초주의)와 본질주의적인 결론론을 유도한다. 그러나 실재를 경험으로 환원하고 지식의 오류가능성을 부정하는 기초주의 존재론에 따르면, 과학적 인식과 실험적 활동과 과학적 변동(개념의 변동)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사건들 간의 규칙성이 희귀한 개방체계(사회)에서의 사물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험적 실재론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은 인간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실재라는 관념과 인과법칙이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초사실적으로 작용한다는 관념 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개방체계에서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거나(경험성) 적용되지 않는다(보편성)는 인식론적 결론을 유도하면서, 실증주의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을 노정한다. 사회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실천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학 경우, 폐쇄체계를 전제로 한 '과학적' 연구 방법의 결과는 자연적 필연성과 우연성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예측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Lawson, 1997) 행정현상에 대한 적실한 이론적 설명과 응용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책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는 경험적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실천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2. 실증주의의 진리대응설은 지식주장의 참을 보증할 수 있는가?

과학이 세계의 성질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세계에 대한 명제의 진위를 가늠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지식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그러나 Khun, Feyerabend의 상대주의와 강성의 사회구성주의 등의 진리개념 무용론, 경험주의의 경험적 실재론적 진리의 당연시 등으로 인해 지식주장에서 진리의 지위를 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는 담론과 실재, 진술과 그것의 대상을 비교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기준점이 없고, 특정한 서술 혹은 특정한 담론 내

에서만 세계가 알려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야기한다(Sayer, 2000: 40). 그러나 행정학의 주류 방법론인 '과학적' 연구방법의 소박한 실재론적 진리관인 진리대응설(truth correspondence theory)은 다른 방법론적 대안들을 억누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지식의 합리성과 진리 값의 문제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 취하고 있는 진리 대응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과학적' 연구방법은 감각지각에 의해 감지된 원자적인 사건이나 사태들 간의 불변의 결합을 인과법칙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식의 진위는 인식론의 확실한 기초인 감각경험(관찰)과의 일치, 대응(correspondence)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관은 사실 진술과 그것의 지시물이 동일하거나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결정적인 대응(일치)은 명시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한 이론을 통해 보증된다(Bhaskar, 2011: 42). 진리대응설에 대한 비판은 먼저 사실과 사실에 대한 진술간의 일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다. 진리대응설은 인과법칙을 경험 가능한 사건들로 환원하고, 사건들을 감각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환원하는 이중의 환원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인과법칙에 관한 지식과 지식의 대상이 일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이 인간의 인식활동으로부터 독립된 실재라는 생각을 유지할 수 없고 대상에 대한 진술과 대상간의 일치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감각경험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지한 원자적 사건이나 사태인 사실들은 과학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간주관적 협의를 통해 창출된다고 주장하는 협약주의(conventionalism)의 입장도 사회적 사실들이 인간의 인식활동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논증하지 못한다.

Bhaskar(2011: 41-43)에 따르면, "자율화된 감각경험이 지식을 획득하는 형식을 구성하고 물상화된 사실이 표현되는 내용을 구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진리대응설의 존재적 측면인 사실은 단순히 의인화된 형식(anthropomorphic form)에 불과하다(Bhaskar, 1994: 63). 따라서 진술(지식)과 진술의 객체 간의 일치를 주장하는 진리대응설은 진술의 객체가 감각지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관념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보증을 할 수 없다(Bhaskar, 2011: 44-48). 진부하리만큼 과학철학의 비판적 논의에서 분명해진 관찰의 이론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사실들은 주관적인 순수 감각에 의해 감지된 사물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개념과 서술들에 입각하여 파악된 사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지식을 수단과 질료로 활용하여 지식을 생산한다는 지식의 사회적 생산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증주의가 인정하는 과학의 실험적 활동과 과학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역사적인 형태에서 과학의 사회적

활동에 의해 생산된 기존의 인지적인 자원과 수단을 활용하여 인간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을 생산한다는 인식적 상대성³⁾(Bhaskar, 1997: 249; 1998: 57-58; 2011; Lawson, 1997: 77-78)이란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의 진리대응설은 절대적이고 몰역사적인 진리 개념을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의 인식과 독립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는 객체들을 이론이 다소 결정하는 특정한 서술(이론적 담론)을 매개로 하여 알 수 있다는 주장이 정확하다면, 실증주의의 인식론적 기초주의와 경험적으로 입증된 명제의 정정불가능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사유속의 객체와 실재적 객체를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비판적 실재론 입장에서 보면 지식과 지식의 객체 간의 일치를 진리로 정의하는 진리대응설은 유지되기 어렵다.

3. 개방체계에서 연역법칙적인 인과적 설명은 가능한가?

‘과학적’ 연구방법의 묵시적 존재론은 원자적 사건과 폐쇄체계 등의 존재론이고 인식론은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기초하여 구성된 원인과 인과성 등에 대한 설명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존재론적 원자론은 사회는 분리되어있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현상은 개인들에 대한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경험적 실재론은 세계의 본질적 속성은 경험적이고 경험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존재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론이 갖는 문제는 존재에 관한 문제를 인식에 관한 문제로 환원하는 인식론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에 정초한 인과적 법칙은 인간의 감각지각과 이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유지할 수 없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인 실증주의 인식론의 설명의 원리는 연역법칙적인 모델에 따라, 초기조건과 함께 보편법칙에서 특수한 개별현상을 예측하는 포섭주의(subsumption)이다. 포괄법칙(covering law)하에 개별현상을 위치시킴으로써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추리통계 방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모집단의 특징을 추정하는 귀납적 추론을 사용한다.

실증주의의 인식론은 인과법칙을 감각경험에 의해 감지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 간의 불변의 결합(constant conjunctions of events)으로 개념화하

3) 인식적 상대성은 모든 믿음들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그래서 모든 지식은 일시적인 것이며 어떤 진리 값이나 합리성의 기준도 역사적 시간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haskar, 1998: 57).

고 있다. 즉 이 이론들은 'if p, then q'와 같이 p, q의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사건들 간의 시간적 연쇄 및 규칙성에 근거하여 p와 q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여기서 원인은 규칙적으로 사건에 앞서거나 동반하는 일련의 전제 조건이다(Bhaskar, 1997: 70). 이와 같이 사건들 간의 연쇄라는 의미에서의 인과개념 차원에서 보면 두 변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원인 변수는 결과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둘째, 독립된 두 변수간의 공변성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제 3의 변수로 야기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다른 사정이 같다면(ceteris paribus) 동일한 원인(like cause)은 동일한 결과(like result)를 초래한다는 인과법칙으로 정식화된다. 실증주의 인식론 관점에서 볼 때, '사건들의 불변의 결합'은 인과법칙의 필요, 충분조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칙성 결정론적 입장과는 다른 통계적 방법(개연적인 것)은 이러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다.

실증주의의 인과적 설명은 경험가능한 원자적 사건들 간의 불변의 관계인 인과법칙을 포함하고 있다.⁴⁾사건들 간의 규칙성은 원자론과 폐쇄체계가 보편적이라는 존재론을 전제한다. 즉 세계는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는 원자적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적 개체들은 시·공간에서만 구별되고 내적 상태가 일정하며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폐쇄체계는 원자적 사건들 간의 규칙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체계를 의미한다. 사건들 간의 경험적 관계가 규칙성을 얻는 폐쇄의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체계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원자적 개체(원자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자성(내적구조의 결핍)과 내적 조건(내적구조)의 불변성이다(폐쇄체계의 내적 조건). 둘째, 체계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체계에 대한 외부의 영향이 불변(외적조건이 체계에 영향을 미칠 때)이라는 외적 조건의 불변성이다(폐쇄체계의 외적 조건). 그리고 집합과 전체의 행동은 언제나 그들의 구성부분의 행동의 의미로 기술될 수 있다는 가산성의 조직 원리와 비가산적 원리의 불변성(체계의 전반적인 상태가 체계의 개별 구성요소의 상태의 가산적인 함수로서 재현될 수 있음) 등이다(Bhaskar, 1997: 76-77; Lawson, 1997: 93-97). 이러한 폐쇄의 조건은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는 규칙성 결정론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인과법칙이라 한다면 법칙 같은 진술(normic statement)에서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실현되지 않는 체계 즉 사건들 간의 경험적 관계가 불안정한 개방체계에서는 인과법칙

4) 이러한 존재론에 기초한 실증주의 인식론의 논리적 비일관성과 이론과 실천의 비일관성에 대해서는 Bhaskar(1997) 2장, Sayer(1992) 5장을 참조하기 바람

이 존재하지 않거나(인과법칙의 경험적 지위의 문제) 인과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인과법칙의 보편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인과법칙이 현실적인 것이라면 개방 체계에서는 인과법칙을 부정하거나, 제한된 폐쇄체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과법칙의 보편성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규칙성 결정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상호작용주의(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진술)와 환원주의(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적 개체로 끝없이 환원)의 퇴행이 전개된다. 따라서 자율적인 존재의 수준을 구성해서 이러한 퇴행을 멈춘다면 인과법칙에 대한 진술을 구성하는 인지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Bhaskar, 1997: 77).

인과법칙의 보편성을 유지하려면 인과법칙이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에 대한 진술이라는 현실주의(actualism)의 교의를 거부해야 한다(Bhaskar, 1997: 92). 초월론적 실재론은 법칙 같은 진술이 폐쇄체계나 개방체계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철학적 논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원자적 개체들은 복잡한 내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과적 힘을 갖지 않으며, 외적원인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적 개체들의 변동인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인과법칙으로 보는 인식론적 관점은 사건들 간의 관계가 우연적 관계인지 필연적인 관계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귀납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인과법칙에 의거하여 설명과 예측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연역 법칙적인 설명 모델은 자연적 필연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개방체계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Lawson, 1999; Sayer, 1992: 169-174). 개방체계에서는 인과법칙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인과법칙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주의(actualism)는 사물의 복잡한 내부구조 부정하기 때문에 사물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나 겪게 되는 인과적 힘과 성향을 개념화할 수 없다. 따라서 사물의 내부구조와 인과적 힘 간의 내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자연적 필연성). 요점은 연역 법칙적 설명모델은 사물이 내부구조의 질적 변동을 통해 물질적 연속성을 보전한다는 관념을 배제함으로써, 사건들 간의 연쇄가 우연적 연쇄인지, 필연적 연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방체계인 사회에서의 사건들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통계분석의 옹호자들은 자연적 필연성 및 인과적 힘의 개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과적 관계와 우발적 관계를 구별하는 적극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Sayer, 1992: 197-199). Lawson(1997: 93-97)은 통계적 폐쇄의 가능성을 가정하는 규칙성 추계론(regularity stochasticism)에 입각한 연역 법칙적 설명의 한계를 논증하며 과학의 실증주의적 개념작용을 거부하고 있다. 실증적인 인과분석이라고 일컫는 회귀분석은

존재론적 깊이의 결여, 인과관계의 방향, 평면적인 존재론(실재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경험의 영역으로 환원함), 환원주의에 따른 상이한 수준의 구조와 인과적 힘의 창발성 무시, 내포적(의미, 신념)인 것을 외연적인 것으로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오류, 관찰 불가능한 것의 생각 등으로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제공하지 못한다(Minger, 2006; Scott, 2005; Hesketh and Fleetwood, 2006). 따라서 실증주의에 입각한 인과적 설명이 갖고 있는 문제는 존재론적 깊이를 결여하고 있고, 현상들 간의 내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와 우연적 관계를 식별하지 못하고, 설명 대상의 질적 변동과 맥락적 변동(창발적 속성) 고려하지 못하며, 설명과 예측을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설명대상의 성질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4. 사회와 개인에 대한 개념작용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실성은 있는가?

사회와 개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념작용(conception)은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개념들을 규제하는 규제원리로 작용한다. 설명적 방법론은 실천적인 사회이론화를 안내한다. 따라서 존재론과 방법론, 실천적인 사회이론 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갖는다(Archer, 1995: 21; Bhaskar, 1998: 30). 물론 존재론과 방법론은 상호규제적인 관계에 있다. 통계적 실증주의에서는 주어진 사실들을 수동적으로 감지하며 그것의 일정한 결합을 기록하는 인간모델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사회학을 전제하며 이러한 전제는 탐구대상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haskar, 2011: 39-40, 57). 감각 경험에서 지식이 나온다는 실증주의 지식이론은 세계가 경험 가능한 원자적 사건이나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원자론),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얻을 수 있는 체계임을 전제하고 있다(폐쇄체계). 폐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규칙성 결정론이 참인가에 달려 있다. 인간 존재인 개인이 복잡한 내적구조에 의해 자신과 물질적 사태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과적 힘을 소유하는 자기결정성이 없는 존재인지?, 가산성의 조직 원리에 따라 사회 및 집단 현상은 단순히 개인들의 행동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상인지? 즉 개인의 합이 사회라는 차원에서 사회는 내부구조나 인과적 힘을 소유하지 않는 하나의 추상모델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실증주의 지식이론은 일관성을 보증 받을 수 있다.

일련의 서술(특정하고 역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에 의해 기록된 사건들 간의 경험적 관계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개방체계에서는 실증주의의 인과법

칙은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방체계인 사회세계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발견한 인과법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인과법칙을 발견할 수 없는 세계로 여겨지고 과학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 연구방법은 사회과학 연구방법으로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Bhaskar(1997: 63-118)는 행위의 차원과 과학적 법칙이 가능한 세계라는 두 차원에서 개인의 원자성과 가산성의 원리를 비판하고 있다. 전자는 행위에 대한 고전적인 패러다임(원자론)에 기초한 접촉에 의한 행위(외부의 힘의 작용)를 비판하면서 비접촉에 의한 행위(자장 같은 실체)는 복잡한 내적 구조를 가진 사물(인과적 힘을 가진 실체)인 경우 가능하며 사물의 변동으로 사건을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사물의 부분적 변동을 통해 사물의 물질적 연속성이 가능하며 사물의 자율성을 보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은 복잡한 내적구조를 가진 자율적인 사물로서 자신과 물질적 세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과적 힘을 가진 인과적 행위자(agents)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과학적 법칙의 두 측면 첫째 인과법칙의 법칙 같은(normic) 성격과 비경험적 성격, 둘째 다중적 통제 상황과의 인과법칙 간의 일관성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는 어떠한가 하는가라는 초월론적 논증을 통해 규칙성 결정론의 존재론을 논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측면과 조화되는 세계는 행동이 동시에 여러 상이한 원칙들이 통제를 받는 내부구조를 소유한 복잡한 실체인 인과적 행위자들로 구성된 세계이다. 즉 복잡한 결정론만이 자율적인 자기결정성(agency)을 갖는 사물과 양립할 수 있으며(Bhaskar, 1997: 111; Archer, 2017a: 151-163) 밀(J. S. Mill)의 상호작용주의와 환원주의 등의 퇴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Bhaskar의 초월론적 논증은 인과법칙이 인과적 행위자(agents)의 행동을 조건 짓지만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규칙성 결정론의 존재론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인과적 행위자들은 다른 인과적 행위자로 환원할 수 없는 창발적인 속성(emergent properties)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생리학적 구조에서 창발하였지만 그것으로 환원할 수 없고 반대로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창발적인 힘은 인간들 간의 간주관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점(Bhaskar, 1998: 90-107)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창발적 속성은 개방체계인 사회에서 사건들 간의 안정적인 경험적 규칙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은 사유능력과 상징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활동과 상황에 대한 성찰적 감지능력 등등의 내적인 인과적 힘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숙고하고 선택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학자는 자연의 인과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정교하게 통제된 실험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동은 그가 자신의 내부구조에 힘입어 작동하는 인과적 힘들의 통제와 과학의 제도적 문화적 객체들의 작용원리에 의한 통제, 물질적 객체들의 작용원리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된다. 이는 통계적 실증주의의 경험적 실재론과는 다른 존재론적 깊이(창발성은 총화된 세계를 함의함)를 강조하는 심층적 실재론이 개인과 사회를 개념화하는데 적실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적 실증주의(경험주의)는 기술과 설명을 관찰 가능한 실체에 한정하며, 감각 지각적 기준에 따라 사건들 수준에서 인과성을 부여하고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찾는 것이 이론적 목표인 접근방법을 의미한다(Archer, 1995: 34). Bhaskar (1998: 27-54; 2011: 55-64)와 Archer(1995: 33-63)는 경험주의 인식론 탓에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집단주의(사회적 사실들 간의 통계적 관계)는 사회와 개인, 사회구조와 인간작인(human agency)을 개념화해야하는 실천적 사회이론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환원주의와 심리학적 원자주의가 작동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을 사회적 실재의 궁극적인 구성요소로 보며, 모든 집단적인 사회현상은 개인들의 활동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 존재론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론은 인식론적으로 환원주의를 동반한다. 그러나 환원주의의 퇴행(심리학적 원자, 세포 등으로의 환원)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개인을 더 이상 환원 불가능한 실재로 개념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심리적 구성요소로 환원할 수 없는 창발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실증주의의 연구방법론의 지침과는 다르게 창발성을 인정하고, 두 개의 층을 포함하는 총화된 사회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환원주의와 창발성은 개인이 사회적 실재의 궁극적 구성요소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감각 지각적 기준에 의해 실재를 부여함으로써 관찰가능한 개인만이 역사를 움직이는 실재이고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관찰 불가능함)는 다른 사람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Porpora, 1998). 따라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구조를 독립적이고 앎고, 개인에 앞서 존재하지 않으며, 인과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개념화한다.⁵⁾ 그러나 개인의 활동을 조건 짓는 자원배분구조나 역할관계, 조직, 제도 등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변동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5) 그렇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을 가리키는 술어들은 모두 그 사용에 있어 사회적 맥락을 전제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Bhaskar, 1998: 28). 공직자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사용하는 술어들이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환원 불가능한 사회적 술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구조와 인간작인을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없는 환원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실천적 사회이론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Archer, 1995: 58).

방법론적 집단주의의 경우 사회조직, 사회제도, 사회적 습속 등은 개인의 성향이나 활동들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사실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힘(force)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실재의 창발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법론적 집단주의는 인과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사실에 실재를 귀속시키고 있다.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규정되고 공직자는 법과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위치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집단주의의 사회적 실재에 대한 개념작용은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경험주의 인식론에 묶여 있는 탓에 관찰가능하지 않은 사회구조(사회적 관계, 관계의 관계)의 창발적 속성(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인과적 효력을 가짐)을 존재론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구조를 사회적 실재의 고유한 층으로 개념화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Archer(1995: 49)는 이를 “집단주의자들은 전체론(Holism)과 경험주의(Empiricism)에 끼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존재론을 분명하기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집단주의자의 사회적 이론의 목표는 관찰가능한 집단현상인 사회적 사실(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사실(고용) 간의 관계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집단주의 방법론이 갖는 존재론적 고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Emirbayer(2003)에 따르면, 실체주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는 자주적 행위(self action)의 원천이며 미리 앞서 주어지고 고정된 속성을 갖고 있는 자주적인 실체(self subsistent entities: 개인이나 집단, 제도, 구조 등)를 분석단위로 삼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자들(개인, 공동체, 기업, 국가)들 간의 동태적인 관계에 배태되어 있는(embedded) 사회적 행위자들의 속성(이해관계, 선호, 정체성)의 변동이나 이들 간의 관계의 변동을 개념화할 수 없다.

Ⅲ. 행정학 연구 방법의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서의 비판적 실재론

비판적 실재론적 입장의 연구가 조직론과 경영학 분야, 경제학 분야, 정보체계론 분야, 교육행정 분야에는 많이 있지만 정치·행정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예를 들면 Jessop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2003), Marsh 와 Smith의 방법론적 다원

주(2000; 2001), Pawson의 다중 방법론에 입각한 정책평가 연구(2004), Hay와 Richard의 전략적 관계론 접근에 입각한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2000) 등이 있다. 정책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의 활성화와 억제하는 조건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설명할 수 있다면, 행정학은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판적 실재론은 실천학문인 행정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회과학철학이면서 사회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장에서 존재론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 실천적인 사회이론 차원에서 실증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모순을 논증하였다. 1절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논증에 기초하여 대안적인 존재론, 인식론, 사회존재론을 제시하고, 2절에서는 실증주의와 다른 과학관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이론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을 논증하고자 한다.

1. '과학적' 연구 방법의 대안적인 메타이론적 논증

실증주의는 존재론을 무시하는 인식론으로서 과학적 연구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실증주의에 대한 내재적 비판은 존재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존재론의 차원에서 보면, 실증주의는 사건들 간의 불변의 결합을 인과법칙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인과법칙에 대한 지식을 실험을 통해 발견하고 체계화하는 활동과 과정을 과학이라고 본다. 또한 과학적인 이론의 구조를 법칙 연역적 설명 구조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과학관은 개인주의와 연관된 개인주의 사회학을 수반한다. 내재적 비판을 통해 밝혀진 실증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는 존재론 영역의 탐구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 대안 제시는 자의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과학에서 실험과 경험이 갖는 인식적 중요성을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으려면, 과학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어떠한가?'에 대한 초월론적 논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서 연구대상의 실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관찰가능성이 갖는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적인 기준으로는 인과적 기준을 들 수 있다. 관찰 가능하지 않은 실재의 인과적 힘은 그것의 효과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두 가지의 기준이 모두 사용된다. 인과적 기준은 물리적 세계의 변동을 낳거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세계에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Bhaskar, 1997: 182)." 인과적 기준에서 볼 때 어떤 실체의 실재는 그것의 존재가 자신의 물질적 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적 사물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달려있다. 사물의 내적 구조에 힘입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과적 힘의 효력에 의해 사물의 실재성이 부여된다. 이와 같이 인과기준에 의해 사물에 실재를 귀속시키는 것은 인간이 복잡한 내적구조에 힘입어 자기결정성(agency) 갖는 행위자로서(agents) 노동과 의사소통을 통해 사물의 변동을 야기하는 실재라는 점에서 자명하게 보인다. 관찰가능성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장은 실재가 아니지만 인과적 기준에서 보면 철을 끌어당기는 인과적 힘을 갖고 있는 실재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인 것들(kinds of nature) 복잡하고 구조화된(structured) 내부구조(실재적 본질)에 힘입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연적 가능성을(잠재력)을 가지고 있다(Harré and Madden, 1998). 예를 들면 물은 분자구조에 힘입어 불을 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사물의 인과적 힘은 사물이 바로 그 사물 이도록 하는 사물의 본질적 속성이다. 즉 “X가 Q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X는 자신의 성질(구조 혹은 구성)에 의해 적합한 상황에서 실제로(really) Q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Bhaskar, 1997: 237). 이러한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그것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인과적 힘은 그 효과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물의 구조에 힘입어 작용하는 인과적 힘들은 조건에 따라서 행사되지 않을 수 있고 행사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물의 인과적 힘들의 반대작용에 의해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물의 존재론은 인간의 경험과 사유(이성)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가 존재한다는 관념을 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에서 보면, 경험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 및 사건들의 패턴들로부터 이들을 발생시키는 사물의 구조나 사물의 작동양식인 메커니즘, 사물의 구조와 내적인 관계(자연적 필연성)에 있는 인과적 힘 등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물의 구조와 내적인 관계에 있는 인과적 힘이 불을 끄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존재론적 구분은 실증주의도 인정하는 실험적인 과학적 활동(사건들 간의 규칙성을 경험적인 확인을 통해 인과법칙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과 인과법칙(사물이 작용하는 방식의 경향)의 보편성(개방체계에서에서도 적용됨)을 납득할 수 있게 하며 철학의 스캔들인 귀납의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과학적 변동(개념의 변동)을 납득가능하게 한다.

인과적 기준에 따른 실재성의 부여는 과학적 설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물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 힘은 원인과 결과를 함께 묶는 존재론적 연결 끈이기 때문에(Harré and Madden, 1998: 107) 힘의 개념은 어느 한 층위에서의 지식에서 다음 층위의 지식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⁶⁾ 실재에 대한 이

러한 개념작용에 따르면, 인식적 상대주의를 견지하면서 아이디어, 신념, 의미 등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연성적 사회구성주의의 해석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Hay, 2011; Bevir, 2004; 2011; Schmidt, 2008).

둘째, 실재론 입장에서 보면 진리대응설의 진리론을 비켜가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사물의 실재론은 진리대응설의 대응을 달리 개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물의 실재론 논지에서 보았듯이 사유속의 실재와 사유 대상이 되는 객체의 실재를 존재론적으로 구분한다(Bhaskar, 1997: 250-251; 1994: 63-64). 이러한 존재론에서 보면 사유 속의 객체와 사유의 객체 간에 대응성, 일치성,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사물(아르키메데스 기준점과 같은 것)은 없다. 실재는 인간의 인식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물의 존재론(존재론적 실재론)에서 보면 이 논지는 당연하다. Siljander(2011: 503-504)는 타르스키의 진리에 대한 의미적 정의(semantic definition of truth)⁷⁾ 즉 “진리는 진술과 사태간의 의미관계이다”라는 진리에 대한 실재론적 개념작용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haskar는 Tarski의 진리이론은 인식적 상대성이 제기하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에서 거부한다. Collier(1994: 241)는 Bhaskar가 진리대응설을 명제와 사태간의 닮음(resemblance)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진리대응설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리대응설은 닮음이 아닌 Tarski의 비교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초사실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세계는 인간의 사유와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활동하며(존재론적 실재론), 이러한 세계의 성질은 특정한(역사적으로 일시적이고,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되고, 변형 가능한) 담론이나 서술을 통해 알려진다(인

-
- 6) 어느 한 층위에서의 지식에서 다른 층위의 지식으로 이행하면서, 객관적 세계질서의 세 가지 수준의 지식(사건들 사이의 관계, 인과법칙, 자연적 종(natural kinds) 등에 관한 지식)을 점진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세 수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힘의 개념이다(Bhaskar, 1997: 172-178). 이는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확인한 다음, 이러한 규칙성을 발생시키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역행추론(retroduction) 하여 인과법칙을 규명한 다음, 이러한 인과적 메커니즘과 내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구조를 확인하여 사물(자연적 종)에 대한 실재적 정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적 지식(어떤 종류의 사물인가?)과 설명적 지식(사물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은 같동하지 않는 유의미한 과학적 지식이다.
 - 7) “진술 ‘p’는 p이어야만 참이다”라는 형식을 띤 진리의 정의이다. 이는 언어와 실재간의 구조적 유질동상을 요구하지 않고 닮음을 요하지도 않는다(Siljander, 2011; Collier, 1994: 240).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의 그림이론을 피할 수 있다.
 - 8) 예를 들면 “이 장소는 기술된 바로 그 장소이다”, “병따개가 우리가 들었듯이 칼을 넣는 서랍에 실제로 들어있는지 알기위해 찾아본다.” 등과 같이 세계도 보고 그때 문장도 보며 그들이 부합하는지 묻는다(Collier, 1994: 241). 이는 언어와 실재의 닮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식적 상대성)는 사물의 존재론 측면에서 보면, 진리대응설을 달리 해석해 볼 수도 있다 (Sayer, 2000: 40-46). 지식생산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과학이라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과학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학 공동체의 간주관적인 동의에 의해 마련된 기준에 의해 지식주장의 진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협약주의의 주장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모든 협약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세계(자연, 사회, 실천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물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실천을 부분적으로 안내하는 신념과 지식 주장(협약에 의한)은 존재론적인 근거를 갖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학적 지식은 실천에 대한 언설을 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사물의 존재론 차원에서 보면, 대응의 관념은 복제가능성(replicability)보다는 실천의 준거성(conformability)과 지적인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을 포함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다(Collier, 1994: 241; Sayer, 2000: 43). 대응 개념의 한계를 고려하면 지식이 알려주는 기대와 실천이 납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실천의 차원에서 진리란 관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Sayer, 2000: 43). 즉 진리에 대한 판단은 실천적 적합성에 비추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적 언설을 담고 있는 지식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현되는 우리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상을 발생시킨다. 세계는 구조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사물의 존재론을 고려하면, 지식의 상이한 부분들의 실천적 적합성은 고도로 선택적이고 불균질할 수 있다(Sayer, 2000: 43). 따라서 과학과 이론은 성공의 영역을 확대하고 적실한 실천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실천적 적합성 차원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반 기초주의와 지식의 오류가능성, 인식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의 진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רכ이메데스의 기준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명제와 구분되는 것으로 사물의 진리에 기초하는 존재론적 진리를 밝히고자하기 때문이다(Bhaskar, 1994: 25-27). 이러한 점에서 인식주관으로 부터의 독립적인 실재를 부정하는 사회구성주의의 협약적 진리관이나 니이체류의 관점주의 진리관과는 다르다.

셋째, 논리실증주의 과학관에 기초한 인과법칙이 경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인과법칙은 사건 및 사태 들 간의 불변의 결합이라는 경험적 규칙성과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 즉 인과법칙이 폐쇄체계나 개방체계에 공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과법칙의 보편성)과, 인과법칙은 인위적으로 폐쇄의 내적·외적 조건을 통제하는 과학적 실험활동과 이러한 조건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규칙성 추계론의 과학적 활동을 통해 경험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인정한다면, 인과법칙은 사건들 간의 패턴과 존

재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이 인과법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인과법칙의 존재론적 기초는 인간의 인식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물(복잡하게 구조화된)에서 찾아야 한다. 실재는 개방되어 있고 응화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응화가 인과법칙의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조건이다. 즉 실재는 경험(감각지각과 개념적 인식의 영역)의 영역, 현실의 영역(경험 가능한 대상인 사건들이 존재하는 영역) 그리고 실재의 영역(사건들을 발생시키는 구조, 발생적 메커니즘, 인과적 힘들이 존재하는 영역) 등으로 응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층들은 서로 환원할 수 없는 창발적 속성을 갖고 있다. 폐쇄체계 내에서, 사물의 복잡한 내부구조에 힘입어 존재하는 인과적 힘, 발생적 메커니즘(구조와 인과적 힘 및 발생메커니즘의 관계는 내적인 관계이며, 자연적 필연성을 갖는 관계를 말함)이 발생시키는 사건들 간의 불변의 결합은 필연적인 연결이다.¹⁰⁾ 즉 발생적 메커니즘이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경우 이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 연결이라는 필연성을 갖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외적이고 우발적인 관계로부터 구분된다. 따라서 과학의 실험적 활동은 사물의 내적구조의 불변성과 사물의 작동방식인 메커니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조건의 불변성을 보장하도록 인위적으로 폐쇄의 내적·외적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실험활동을 통해 얻어진 사건들 간의 불변의 결과는 특정 메커니즘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법칙은 사물의 발생메커니즘의 경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방체계에서는 사물의 인과적 힘으로 존재하는 메카니즘은 행사되지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다른 메커니즘의 반대작용에 의해) 잠재력이기 때문에 인과법칙은 발생 메커니즘의 경향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즉 개방체계의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을 이러한 논지에서 보면, 설명적 과학은 자연적 필연성, 존재론적 깊이, 인과적 힘, 인과법칙의 초사실성 등을 유지할 수

9) 사건을 선행조건의 충족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내적구조가 있는 사물에서의 변동으로 이해한다면 원인을 물질적 상태의 차이나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물질적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인과적 힘은 사물의 내적구조와 자연적 필연성의 관계에 있다.

10) 내적인 관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맺고 있는 관계가 없다면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 등). 자연적 필연성은 사물의 성질(구조나 구성)과 그러한 성질에 힘입어 사물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는 힘 및 경향 간의 관계의 성격을 말한다. 외적이고 우발적인 관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어느 하나와의 관계 여부없이 존재하는 관계를 말한다. 내적인 관계는 관계를 맺는 구성요소들의 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발적인 힘이 만들어 지는 관계이다. 인과적 힘은 사물의 구조에 의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하며,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동방식이며 사물의 인과적 힘으로서 존재한다. 인과적 힘이 어떤 투입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 인과적 힘은 사건이나 효과를 발생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경향은 행사되거나 작용하고 있지만 실현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인과적 힘을 말한다. 경향은 존속하는 인과적 힘의 연속적 활동을 포착하는 개념이다.

있는 사물의 존재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Bhaskar(2009: 3-4)는 이를 과학적 실재론이라고 한다.¹¹⁾

넷째, 사회학적 환원주의와 심리학적 환원주의에 입각한 사회와 개인에 대한 개념 작용에 따른 행정학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실천 즉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집단주의 등은 선택능력 즉 인과적인 의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작인(human agency)과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하고 제약하는 구조의 창발적 속성(emergent properties), 그리고 구조와 인간작인 간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사회적 실재를 개념화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사회와 개인에 대한 실증주의의 개념작용은 법과 제도, 정부 관료제, 정부와 시장, 정부와 시민사회관계의 맥락에서 자기결정성에 입각하여 행위 해야 하는 공직자의 행정행위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구조와 인간작인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이 요구된다.

2. 행정학 연구 방법의 대안적인 메타이론으로의 비판적 실재론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의 대안적인 메타이론인 비판적 실재론¹²⁾은 사물의 존재론에 초점을 맞추어 근래의 과학철학에서의 반 일원론적 경향과 반연역주의적 경향이 갖고 있는 합리적 통찰을 살려내면서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메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사회과학철학 및 사회이론의 한 분파이다.

1) 존재론적 특징: 과학의 두 차원, 총화된 실재, 인과법칙의 초사실성, 창발성

사회과학철학으로서의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과학이 가능하려면 사회와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Bhaskar, 1998)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적절한 사회과학적 설명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적 실재론의 존재론적 가정은 ‘실재는 인간의 지식(확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총화, 구조화, 그리고 분화되어 있고 변동한다’는 것이다. 과학은 실재의 보다 깊고, 보다 기초적인 층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는 구조화되어 있고

11) 과학적 탐구의 객체는 과학자와 과학적 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이론이다.

12) 본 논문에서 말하는 비판적 실재론은 여러 버전의 비판적 실재론 중(Maxwell, 2009: 3-13)에서 Bhaskar가 정초한 비판적 실재론을 의미 한다. 그의 비판적 실재론은 일반적인 과학철학인 초월론적 실재론과 인간과학에 관한 비판적 자연주의를 축약한 것이다.

자동적인 것(intransitive)'이라는 존재론을 주창한다(Bhaskar, 1997). 즉 실재는 경험 가능한 사건과 사건들의 패턴과 이러한 사건들과 패턴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과 구조로 총화되어 있으며,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한차원은 인간에 의해 생산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움직이는 자동적인(intransitive) 객체가 존재하는 차원(존재론적 차원)이다. 이러한 객체는 사건과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상(things), 구조(structures), 발생적 메커니즘(generative mechanisms), 인과적 힘, 과정(process)을 말한다. 지식의 다른 한차원은 지식은 사회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지식의 생산과 독립해 있지 않는 지식의 타동적(transitive) 객체이다(인식론적 차원). 이러한 객체는 이미 존재하는 개념적 차원, 이론, 시각, 사회적 규범, 담론 등이며, 이러한 개체들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실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타동적 차원이 갖는 의미이다. 지식의 자동적 차원과 타동적 차원을 구분하여 개념화하지 않으면 실재와 지식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인식론적 오류(존재의 지식화)와 존재적 오류(지식의 존재화)를 범하게 된다. 과학적인 연구는 이와 같이 자동적인 객체(intransitive objects)와 타동적인 과정(transitive process), 그리고 인식주체의 자아의식적인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이고 규범적인 특징(intrinsic features)을 내포하고 있다(Bhaskar, 2009: 16-17; 1994: 47). 이들 간의 관계는 성좌관계(constellation)이다.

성좌관계는 존재론적 실재론, 인식적 상대성, 판단적 합리성(인식적 상대성이 판단적 상대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간의 내포적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학적 연구는 존재론적 차원, 인식론적 차원, 인식주체의 규범적이고 평가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는 동태적 과정이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실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동적인 실재 내에서 연구자는 특정한 문화적 제도적 맥락 내에서 기존의 이론, 개념, 모델 등등 지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실재를 기술하고 설명한다(타동적 과정). 역사, 사회적으로 생산된 타동적 객체의 영향 하에서 의도적이고 규범적인 흐름인 인간의 의식의 내적인 특징은 타당성 차원에서 이론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적 합리성을 가능하게 한다. 성좌관계는 '자동적 실재' <타동적 과정> 내적인 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연구자의 활동과 인식으로 독립적인 실재가 자동적 객체라는 존재론적 실재론과 함께 기존의 담론을 활용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과정인 타동적 과정에서의 인식적 상대성의 현실성을 동반한다. 또한 이러한 존재적 실재론과 인식적 상대성의 현실성(인식주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특징(extrinsic features))하에서 판단적 합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내적인 특징(intrinsic features)이 존재한다.

실증주의와 탈구조주의에 기초한 사회구성주의와 비판적 실재론이 다른 점은 이러한 차원들과 연관된 의미작용의 삼각관계(signification triangle) 즉 기표, 기의와 지시물간의 삼각관계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면 보다 명확해진다(Sayer, 2000: 35-40). 기표(문자나 말 이미지)는 소통에 있어서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기표(문자나 말, 이미지)와의 차이를 통해서 발언의 진의(locutionary force)를 전달한다. 기의는 다른 기의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개념화를 가능하게 한다(은유, 비유, 환유를 포함함: 타동적 차원). 지시물(referents: 자동적 차원)은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것의 객체를 말한다. 이들의 삼각관계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다. 따라서 의미변동을 파악하고 지적인 담론이 가능하려면 자동적인 객체인 지시물(referents)과 이러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기호(기의와 기표의 결합)의 지시(reference, 타동적 차원)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Bhaskar, 1994: 52-53; Sayer, 2000: 36-37). 의미나 세계가 기호들의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차이의 놀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인간 활동과 개념에 의존하는 사회구조와 지식체계를 도식적으로 과학의 타동적 차원으로 오해 할 수 있지만 연구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동적인 객체이다(Bhaskar, 2009: 24-25; Sayer, 2000: 10; Lawson, 1999: 222-223). 이러한 지시적 분리(referential detachment)를 가정하지 않는 실증주의는 기표와 지시물의 무매개적 관계를 가정하여 의미변동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탈구조주의에 기초한 사회구성주의는 지시물을 제거함으로써 지적인 담론의 조건을 제거한다. 실증주의 연구는 세계가 우리의 감각경험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재를 감각 경험의 객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험적 실재론을 전제하는 인식론적 오류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식의 두 차원은 인식론적 반 기초주의와 오류가능주의, 그리고 지식생산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근거한 인식적 상대주의를 근거 짓고 있다. 따라서 실재의 자동성을 인정하는(이론 선택의 판단적 합리성을 인정하는) 연성적 사회구성주의의 방법론과 결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재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건과 사건들의 패턴들이 이들을 발생시키는 구조, 메커니즘과 구분 된다는 것을 말한다.¹³⁾실재는 실재적 영역(domain of real), 현실적 영역(domain of actual), 경험의 영역(domain of experiences) 등으로 층화 및 중첩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층화와 깊이는 과학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¹⁴⁾ 이러한 층들은 다른 하나의 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과적 힘을 갖고 있는 실재

13) 비판적 실재론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신희영(2014)의 논의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14) 경험적 영역은 경험과 인상의 영역이고, 현실적 영역은 경험에 더해 사건과 사태의 영역이

로서 창발적 속성(emergence)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심층적 존재론은 메커니즘, 사건, 경험 등의 중첩으로 구성된 실재를 경험의 범주로 단일화하는 경험주의 존재론(통계적 실증주의와 사회구성주의 등의 현실주의를 함의하고 있음)과 다르다.

이러한 존재론에서 보면 복잡한 총체인 사물의 실재는 다층적으로 층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층에서 사건을 만들어 내는 구조, 메커니즘, 인과적 힘들은 그 밑에 있는 층의 구조, 인과적 메커니즘, 힘들과 경향에 의해 창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들에 의해 그 위의 층의 구조, 인과적 메커니즘, 인과적 힘들과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보다 심층적 수준의 지식이 보다 표층적인 지식의 수정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Bhaskar, 1998: 12). 또한 어느 한 층의 사건을 발생시키는 인과적 메커니즘의 작용은 수평적인 층의 다른 인과적 메커니즘들과 우연적으로 결합하여 그의 인과적인 힘의 효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존재론적 층화와 깊이를 갖고 있는 자연적 메커니즘들의 실재적 다중성(the real multiplicity of natural mechanisms)은 그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의 실재적 다원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층화와 관련 된 것으로 창발성(emergence)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특징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현상을 발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창발성은 개방체계에서는 실증주의의 법칙 연역적인 인과적 설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실재의 다층성과 창발적 속성은 인식론의 깊이와 상응한다(Collier, 1994: 107-134). 이는 어느 한 층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그 밑에 층의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된다 할지라도 설명대상인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 밑의 층의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인식론적 층위의 창발성 때문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인과법칙의 보편성을 초사실성(transfactuality)으로 설명한다. 즉 사상(things)과 구조의 인과적 힘과 발생적 메커니즘의 경향인 인과법칙은 개방체계이든, 폐쇄체계에서나 우리의 확인, 확인조건과 관계없이 초사실적으로 존속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Hume의 경험주의의 법칙설명 즉 원자적으

며 실재적인 영역은 경험과 사건에 더하여 구조와 메커니즘의 영역이다. 구조와 메커니즘은 실재적인(real) 것이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사태와는 구분된다. 사건과 사태는 실재적인 것이고 이것을 파악하는 경험과 구분된다. 실재성을 부여하는 인과적 기준에 따르면, 구조, 메커니즘, 사건, 경험 모두 실재(reality)이다. 실재적인 것은(the real)은 사건을 발생시키는 사물의 구조, 인과적 힘, 메커니즘 등을 말한다. 현실적인 것(the actual)은 구조나 메커니즘이 활성화되고 실현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노사관계의 체계의 급진적인 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힘을 촉발하거나 제한이 풀리는 경우에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지체는 경험적으로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물론 경험적으로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

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경험 가능한 사건들의 불변의 결합(constant conjunctions of events)을 인과법칙으로 설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현실주의(actualism)입장에서 인과법칙을 개념화하면 과학적 추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연역주의와 귀납주의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존재론적 층화와 깊이, 분화와 존재론적 창발성을 전제하는 비판적 실재론은 인과법칙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사회구조와 인간작인과의 관계: 관계론, 창발성 존재론(emergence ontology)

비판적 실재론은 이러한 존재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와 사람의 속성을 규명하고 있다. 자연주의의 사회과학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한계를 사회구조와 인간작인(human agency)의 성격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사회구조와 인간작인(human agency)¹⁵⁾간의 관계는 사회현상의 적합한 설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이들의 관계를 사회활동의 변형모델이나 형태발생론(Archer, 1998)과 관계론 등의 입장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구조와 인간작인 간의 이원론을 거부하며 구조와 인간작인 간의 상호작용(인과적 상호의존성)의 역사성과 구조와 인간작인 등의 창발성, 그리고 구조와 인간작인 간의 존재론적 틈을 강조하며 주의론과 물화를 거부한다.¹⁶⁾

Bhaskar는 개방체제인 사회는 개인들이 변형하고,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practices), 관습(conventions)의 양상불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Bhaskar, 1998a: 31-44). 복잡한 총체인 사회구조는 내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요소¹⁷⁾들이며, 한편으로는 이들 요소내의 변동과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요소들과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복잡한 사물인 이러한 요소들은 자신 내부의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인과적 힘이 창발한다. 첫째, 사회구조

15) 인과적 행위자(agent)는 힘을 소유한 것을 말하고, 의도적 인과성인 인간작인(human agency)은 인간존재의 특정한 힘과 능력으로 이해하며, 행위(action)는 인간작인의 의도적 행사(의도적인 인간 행동)를 말한다. 의도성은 이유(신념, 아이디어, 가치 등)가 인간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동함을 말한다(Lawson, 1997: 190). 인간작인이 갖는 의미는 작인의 변형적 능력이 더해, 의도성과 인간의 선택 능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16)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신희영(2007: 145-149)의 논의에 의존한다.

17) 요소 A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이 요소 B이라면 요소 A는 요소 B와 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Bhaskar, 1994: 254).

는 창발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실천으로 환원될 수 없다. 사회에 대한 관계적 개념작용에 따르면 사회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발현(emergent)된 것이지만 인간과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환원되지 않고 이들을 조건화하는 인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Lawson, 2003: 183). 이것이 창발성 개념이 갖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창발적 속성은 초기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사회구조)간의 불연속성을 수반한다. 둘째, 사회적 형태는 사람이 어떤 의도적 행위를 하는데 필수적이다(지식의 자동적 차입). 사회구조는 현재의 행위자의 모든 현재의 행위에 앞서서 존재하면서 현재의 행위자의 활동과 개념작용에 의존하지 않는 가능성 혹은 제약(enablements or constraints)의 형태로 현재의 행위를 조건 짓는다. 이러한 조건화는 현재 행위자가 사회적 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황논리를 제공한다. 셋째, 사회적 형태가 의도적 행위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구조의 인과적인 힘(causal power)은 인간 작인(human agency)을 매개로 한 그들의 효과를 통해 그들의 실재를(reality) 입증한다. 따라서 구조와 인간작인을 연결하는 주관성의 존재론이 의미를 갖는다(Archer, 2004). 다섯째, 사회는 개인들이 사회를 변형하고, 재생산하는 인간의 활동과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지만(물화의 오류) 인간의 활동의 산물은 아니다(주의론의 오류). 그래서 사회구조와 인간작인 간의 존재론적 구분과 인과적 상호의존성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Bhaskar의 변형적 사회활동 모형(Bhaskar, 1998: 33-35; 1994: 94-95; 2011: 4-5)과 사회에 대한 관계적 개념작용(1998: 28-31; 2011: 3-4; Archer, 2017b: 128-133), Archer의 형태발생론(1995; 2017c: 102-124)과 분석적 이원론(Archer, 1995) 등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사회구조와 인간작인은 각기 고유한 창발적 속성(인과적 힘)을 갖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인 상호의존관계이다. 사회구조의 관계적인 속성인 창발적 속성은 인간의 상호작용행위에서 발현하는 것이지만 인간작인과 상호작용행위를 조건 짓는 인과적 힘으로 작용한다. 물론 사회구조의 실재성은 인간작인을 통해서 매개되는 인과적인 힘의 간접적 효과에 의해 입증된다. 이는 사회구조의 인과적 힘이 인간 작인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것과 인간 작인은 존재론적으로 인과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haskar, 1994: 89-100; Archer, 2017a: 151-163). 이는 사회의 재생산과 변형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지만 앞선 조건의 기계적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 주체의 능숙한 성취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인간은 사회구조와는 다르게 의도성과 자의식성, 성찰성을 가

18)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신희영(2008)를 참조하였다.

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행위의 상황논리를 제공하는 사회구조의 조건화(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담론을 매개로 일정한 정도의 자유(the degree of freedom)를 행사하여 다르게 행위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지 하지 않은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이유, 의도, 계획 등에 기초하여 의도적인 인과성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실재론은 구조와 인간작인을 실재의 구분되는 층으로 개념화(층화된 실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이원화 하지 않으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Bhaskar(1998: 40-41)는 구조와 인간작인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합리적 개념으로 위치 실천 체계(Position- Practice system)을 제시하면서, 상이한 위치에 있는(positioned) 사람들에게 상이한 행동진로의 이유를 제공하는 구조를 통해 구조의 행위에 대한 조건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개인에 대한 구조적 효과는 그러한 지위에 구축되거나 지위와 연관된 이해, 의무, 자원, 권력, 제약, 규칙, 규약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Pratten, 2000: 117). 즉 사회구조의 인과적인 힘은 인간들이 직면하는 상황을 형성하는 효과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의 조건화를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Archer(2017a: 152)는 주관성의 존재론적 지위가 충분히 통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구조와 인간 작인 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주관성의 존재론적 지위를 강조하면서 구조와 인간 작인을 연결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대한 인간의 성찰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논점은 구조와 인간 작인간의 매개과정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인간 주관성이 하는 역할을 비판적 실재론은 빠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조와 인간 작인의 상호작용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비판적 실재론은 자신이 처해 있는 구조적 상황(사회적 관계)에 대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응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성찰성의 부분을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에 원천을 두고 있는 담론을 매개로 하여 인간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관계를 자각(self-awareness)하며 이에 대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사회적 실천은 개념 의존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실재론자들은 사회적 실천에 대한 설명에서 해석학적인 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해석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3) 사회과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적 함의: 인과성, 과학적 발견의 논리, 다중 방법론

Bhaskar(1998: 45-54)는 사회구조의 인간의 활동의존성, 개념의존성, 시간간의

존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과는 다른 인식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자연주의의 한계를 존재론적 한계, 인식론적 한계, 관계적 한계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활동, 개념, 시공간의존성은 자연주의에 대한 존재론적 한계이다. 인식론적 한계는 사회과학적 탐구 대상은 불변의 경험적 규칙성이 통용되지 않는 개방체계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그들의 이론을 결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이론의 합리적 발전과 대체의 기준은 예측의 적합성이 아니라 설명력¹⁹⁾이어야 한다. 관계적 한계는 사회과학은 사회의 일부로 사회영역에서의 지식 생산과정은 관심 대상의 생산과정과 인과적 및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사회과학은 성찰적, 비판적 성격(대상과 개념, 이론에 대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적 관점에서 인과성은 원자적 사건들(원인과 결과)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나 관계들의 인과적 힘(causal power)이나 성향(liabilities), 실체들(entities)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메커니즘과 관련된다(Sayer, 1992: 104). 이는 다른 사정이 같다면 '사건 p가 일어나면 사건 q가 뒤따를 것이다.' 혹은 사건 p의 변동은 사건 q의 변동을 생산한다. '로 표현하는 것을 p사건 뒤에 q사건이 뒤따랐다' '사건 p가 어떻게 작동해서 사건q를 발생시켰는가?' 의 질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원인은 '무엇이 그것의 변동을 발생시켰는가?' 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개념작용은 세계는 구조화되어 있고 총화되어 있으며, 분화되어 있다는 심층적인 존재론의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사물(things)의 인과적 힘과 사물의 작용방식인 메커니즘의 경향인 인과법칙은 폐쇄체계나 개방체계에 관계없이 작용하는데 반해서, 사건의 연쇄의 불변의 결과는 인과적 행위자인 우리의 실험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폐쇄체계), 사건의 연쇄는 인과법칙의 실제적 기초가 될 수 없다. 실험활동은 인과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사건들의 패턴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며, 과학에서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폐쇄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개방체계인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인과법칙은 결정적인 검증 상황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 이론의 합리적 평가와 발전의 기준은 예측력이기 보다는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Bhaskar, 1997: 27). 비판적 실재론의 인과적 개념작용에서 보면 사건들인 원인과 결과는 상이한 수준에서 작용하는 다중의 인과적 실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원인 사건

19) 통제된 실험상황 밖에서의 이론을 평가하는 적합한 기준은 설명력이어야 한다(Lawson, 1998: 157). 즉 광범위한 경험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 의거하여 이론들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 결과 사건 등의 연쇄가 규칙적인 패턴을 갖기 어렵다. 즉 인과적 힘들이나 메커니즘들과 그것들의 결과들 사이에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메커니즘이 조건에 따라 전혀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상이한 메커니즘들이 동일한 경험적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인과적 힘과 발생적 메커니즘들은 그것의 결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Sayer, 1992: 107-108). 이러한 인과관계 개념작용의 핵심은 인과적 실체(causal entities)의 성질(nature)에 힘입어 특정의 작용방식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사물과 구조의 성질과 인과적 힘은 내적, 필연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과학에는 규칙성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고안되고, 가정된 과정과 실체의 실재(reality)가 검토되는 일종의 변증법 있다. 이것이 과학적 발견의 논리이다(Bhaskar, 1997: 146-148).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사용되는 추리는 귀납주의와 연역주의와는 다른 역행추리(retroduction reasoning)²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실재론적 설명모델은 3가지 기본적인 단계를 포함한다. 사건을 발생시키는 가능한 메커니즘에 대한 가정, 그것의 존재에 대한 증거수집, 가능한 대안적 설명 제거 등이다(Outhwaite, 1998: 292-293). 이는 경험적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실재적 구조와 메커니즘을 밝히는 방식으로 가설적 모델을 설정하고 경험으로 이를 평가하는 설명방식을 말한다.

사회과학의 목표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행동이 행위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인과적 이해를 포함한다(Manicas, 1998). 해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해석적 이해의 기술은 행위자의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신념, 이론,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Morton, 2006: 5).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현상의 개념 의존적 현상이고 사회현상에 담겨진 의미는 측정될 수 없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석학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학과 다르게 인과적 이해의 개념작용은 인과적 설명과 이해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해석학의 옹호

20) 세계를 인식하는 사유운동은 실재적 구체(다중규정의 종합)에서 합리적 추상을 통해 사물(things)의 필연적이고 내적인 관계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내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경향 및 발생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다음은 사유적 구체의 수준에서 이러한 경향 및 메커니즘들과 우연적 조건들의 우연적 결합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Sayer, 1998: 120-130; Lawson, 1998: 170-176). 이와 같은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적용되는 논리는 귀납추리 및 연역추리와는 구별되는 역행추리(retroduction reasoning)이다.

자는 기호현상(semiotics)과 그것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흠이 인과적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실재론적 인과의 개념(즉 인과는 무엇이 변동을 낳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보면 기호현상(행동의 의미와 이유의 기호적 성격)은 행동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적 설명(인과적 이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결과들은 (concrete outcomes) 실재의 상이한 층에서 작동하는 다원적 원인들의 조건적인 결합의 결과이다. 따라서 구조의 경향(성향)을 파악하는 것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특정한 메커니즘과 사건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과는 구분을 할 수 있다(Manicas, 1998: 323-24). 이는 방법의 다원성과 다양한 방법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특정 방법에 대한 선호보다는 탐구의 초점, 성격, 목적에 따라 양적인 연구방법(외연적 연구설계)과 질적인 연구방법(실질적 인과성을 탐구하는 내포적 연구설계)을 활용할 수 있고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Sayer, 2000: 19-22). 이러한 주장의 논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물의 존재론(존재론적 층화)의 존재론적 전제와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 의한다. 연구의 구체적 대상이 상이한 수준에서 작용하는 다중 규정들이 결합되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상을 연구하는 데는 두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구체적 사건들 간의 경험적 규칙성을 확인하거나, 발생적 메커니즘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양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비판적 실재론 입장에서 보면 양적 방법론을 이론적 검증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폐쇄의 내적, 외적 조건이 충족될 때이다. Lawson(1997: 214-241)의 절반의 규칙성(demi-regularities) 개념과 Downward, Finch & Ramsay(2002)의 제도와 정신적 모델의 개념 등은 폐쇄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을 일정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경험적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 모형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회귀모형과 같은 통계분석모형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인과적 힘의 행사의 결과들의 규칙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과적 메커니즘의 효과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외연적 연구 설계는 인과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 모집단의 공통적 속성과 일반적 유형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규칙성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과 조건에 관한 연구나, 구조와 인과적 힘 및 메커니즘의 내적인 관계의 연구에서는 내포적 연구설계를 통해 할 수 있다. 비판적 존재론에서 보면 실재를 물질(material), 관념적(ideal), 인공적(artifactual), 사회적 실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Fleetwood, 2005) 이들 모두는 인과적 효능(causal efficacy)을 갖고 있는 실체들이다. 이들에 접근하는 인식론적인 수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물리적 대상은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으며, 사회규범과 실천은 참여적 시

각의 질적인 탐구를 요하며, 개인적 가치나 느낌은 해석적 분석을 요한다(Mingers, 2006: 215). 사회현상의 개념의존성을 고려하면, 이중의 해석학은 사회과학의 연구의 필수적인 방법이다. 이는 민속지학연구와 담론분석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담론과 담론외적인 요소들 간의 관계, 사건의 담론적 요소와 사회적 실천의 네트워크의 담론적 요소로서의 담론질서(언어, 기호체계로서 푸코류의 담론)간 관계 등의 2중적인 관계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이 사회변동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는 비판적 실재론적 담론 분석도 하나의 예이다(Fairclough, 2005: 923-927).

비판적 실재론에서 인과적 설명은 사건을 발생시키는 발생적 메커니즘과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과학적 사유운동은 명백히 드러난 현상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구조, 메커니즘, 힘과 경향으로 운동하는 것이다(Bhaskar, 1998: 13).

IV. 결론

과학의 목적이 세계의 성질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세계에 인식론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세계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한다. 세계의 성질은 그것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존재론과 인식론은 실질적인 과학에서 연구방법의 선택과 전략을 선택하는 준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적' 연구방법이 지식생산에서 정당한 방법이라면 왜 그런지 성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 실증주의는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는 주류 방법론이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방법의 메타 이론적 기초들인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회존재론적인 항목들이 정당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논증하는 대재적 비판의 방법으로 존재론과, 인식론, 방법론, 실천적 이론 간의 일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과학의 자동적 차원과 타동적 차원 구분, 실재의 층화와 구조화되어 있음, 개방체계와 폐쇄체계의 구분과 실재의 분화(다원적 실재), 고유한 인과적 힘을 갖고 있는 구조와 인간행위자 간의 관계, 행위의 이유(의도)의 인과적 지위에 대한 인정 등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인 메타이론에 기초할 경우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은 패러다임 사이의 대립은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양 연구방법을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성질, 연구 과정에서의 단계 등을 고려하여 혼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방법으로도 타당하게 연구할 수도 있다. 즉 비판적 실재론은 연구방법의 다원성과 다중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오류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참인 이론과 실천적으로 적합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종민. 2016. “한국행정학보를 통해 본 한국의 행정연구 반세기: 인과이론 형성의 시각에서.” 《한국행정학보》, 50(3): 1-34.
- 신충식. 2009. “질적 연구방법론과 그 철학적 토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신희영. 2007. 정책네트워크 동태성의 이론에 대한 고찰: 사회적 활동의 변형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143-165.
- _____. 2008. “비판적 실재론과 행정학 연구 방법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_____. 2012. “복지 거버넌스의 조정자 되기: 여성가족부 공직자의 이야기에 대한 담론분석.” 《한국행정논문집》, 24(4): 773-802.
- _____. 2014. “행정윤리에 대한 제한적인 윤리적 자연주의 접근” 《한국행정학보》 48(3): 27-50.
- 심준섭. 2006. “행정학 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결합.”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윤건수. 2008. “인문학적 성찰과 행정학 방법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71-90.
- 임의영. 2008. “행정에 관한 규범적 연구의 가능성 모색.”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호정. 2017. “실증주의.” 한국행정학회편, 《한국행정학 60년》, 21-39.
- Archer, M.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cher, M. 1998. “Realism and Morphogenesis.” in Archer, Margaret et al(eds). *Critical Realism*(pp. 356-381). London: Routledge.
- Archer, M. 2004. *Being Human: the Problem of Ag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cher, M. 2017a. “The ontological status of subjectivity.” in Brock. T., Carrigan. M. and Scambler. G.(ed). 2017. *Structure, Culture and Agency: Selected Papers of Margaret Archer*(pp. 151-164). London: Routledge.

- Archer, M. 2017b. "For structure: its reality, properties and powers." in Brock. T., Carrigan. M. and Scambler. G.(ed). *Structure, Culture and Agency: Selected Papers of Margaret Archer*(pp. 128-137). London: Routledge.
- Archer, M. 2017c. "Morphogenesis versus Structuration: on Combining Structure and Action." in Brock. T., Carrigan. M. and Scambler. G.(ed). *Structure, Culture and Agency: Selected Papers of Margaret Archer*(pp 102-125). London: Routledge.
- Bevir, M. 2004. "Governance and Interpretation: What are Implication of Postfoundationalism?" *Public Administration*, 82(3): 605-625.
- Bhaskar, Roy. 1977, 1997 2ed.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Verso.
- Bhaskar, Roy. 1979, 1998 3ed.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London: Routledge.
- Bhaskar, Roy. 1986, 2009. *Scientific Realism and Human Emancipation*. London: Routledge.
- Bhaskar, Roy. 2011. *Reclaiming Reality: A Critical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hilosophy*. London: London: Routledge.
- Bhaskar, Roy. 1994. *Plato Etc.: The Problems of Philosophy and Their Resolution*. London: Verso
- Cruikshank, J. 2002. "Critical Realism and Critical Philosophy." *Journal of Critical Realism*, 1(1).
- Collier, Andrew. 1994. *Critical Realism: An Introduction to Roy Bhaskar's Philosophy*. London: Verso.
- Downward, P., Finch, J. H. & Ramsay, J. 2002. "Critical Realism. empirical methods and inference: critical discuss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6(4): 481-500.
- Emirbayer, M. 1997. "Manifesto for Relational Soci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287-317.
- Fairclough, N. 2005. "Peripheral Vision: Discourse Analysis in Organization Studies: Th Case For Critical Realism." *Organizational Studies* 26(6): 915-939.
- Fleewood, Steve. 2005. "Ontological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tudies: A Critical Realist Perspective." *Organization*, Vol 12(2): 192-222.
- Harre, R. and Madden, E.H. 1998. "Conceptual and Natural Necessity." in Archer, Margaret et al(eds). *Critical Realism*. London: Routledge.

- Hay, Colin and Richards, David. 2000. "The Tangled Webs of Westminster and Whitehall: the Discourse, Strategy and Practice of Networking Within the British Core Executive." *Public Administration*, 78(1).
- Hay, Colin. 2011. "Interpreting Interpretivism Interpreting Interpretations: The New Hermeneutics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89(1): 167-182.
- Hesketh, A., and Fleewood, S. 2006. "Beyond Measuring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Organizational Performance Link: Applying Critical Realist Meta-Theory." *Organization*, 13(5): 677-699.
- Lawson, Tony. 2003. "Institutionalism: On the Need to Firm up Notions of Social Structure and the Human Subject." *Journal of Economic Issues*, 37(1): 175-207.
- Lawson, Tony. 1997. *Economics and Reality*. London: Routledge.
- Lawson, Tony. 1999. "Critical issues in economics as realist social theory." Fleetwood, S.(ed). *Critical Realism in Economics*. London: Routledge.
- Lowery, Daniel and Evans, Karen G. 2004. "The Iron Cage of Methodology: The Vicious Circle of Means Limiting Ends Limiting. means." *Administration & Society*, 36(3): 306-327.
- Marsh, D. and Smith M. J. 2001. "There is More than On Way to Do Political Science: on Different Ways to Study Policy Networks." *Political Studies*, 49: 528-541.
- Marsh, D. and Smith M. J. 2000. "Understanding Policy Network: Toward a Dialectical Approach." *Political Studies*, 48(1): 4-21.
- Maxwell, Joseph A. 2009. *A Realist Approach for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s
- Mingers, J. 2006. "A critique of statistical modelling in management science from a critical realist perspective: its role within multimethodology."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57: 202-219.
- Outhwaite, William. 1998. "Realism and social science." in Archer, Margaret et al(eds). *Critical Realism*. London: Routledge.
- Pawson, P., Greenhgh , T., Harvey, G., Walshe, K. 2004. "Realist synthesis: an introduction." *the ESRC Research Methods Programme Working Paper*

Series. University of Manchester.

- Porpora, Douglas V. 1998. "Fore concepts of social structure." in Archer, Margaret et al(eds). *Critical Realism*. London: Routledge.
- Pratten, S. 2000. "Structure, Agency and Marx's Analysis of the Labour Process." in S. Ackroyd and S. Fleetwood(eds). *Realist Perspective 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London: Routledge.
- Sayer, Andrew.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London: Routledge.
- Sayer, Andrew. 2000. *Realism and Social Science*.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Schmidt, Vivien A. 2008.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Ideas and Discourse." *Annu. Rev. Polite. Sci.*, 11: 303-326.
- Siljander, Pauli. 2011. "What Are We Looking For?-Pro Critical Realism in Text Interpret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5(3): 493-507.
- Scott, David. 2005. "Critical realism and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9(4): 633-646.
- Scott, David. 2006. "Critical realism and statistical methods: a response to Nash."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2): 141-154.
- Scott, David. 2007. Resolving the Quantitative-qualitative dilemma: a critical realist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Method in Education*, 30(1): 3-17.
- White, Jay D. 1986. "On the Growth of Knowledge in Public Administration." *PAR*, 46(1): 15-24.

A immanent Critique of Metatheory for the 'Scientific' Method in Public Administration: Critical Realism Approach

Shin Hee Young

This article aims (1) to demonstrate the inconsistency of relationships among ontology, epistemology, and practical social theory of the 'scientific' method through immanent critique of its meta-theoretical basics, (2) to point out that critical realism(alternative metatheory) provide possibilities to solve the dilemma of mix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ies and the useful concepts of constructing social theory. For this purpose, we argue in this paper that the following meta-theoretical basics for the 'scientific' method are untenable: the independence of reality from cognitive subjectivity; truth correspondence theory; reductionism assumption of society and individual; the structure of the deductive-nomological explanatio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y). Critical realism is the appropriate meta-theory to underpin the use of empirical research methods.

※ Key Words: critical realism. immanent critique, ontological stratification, ontological emergence